

BA.5 검출률 56.3%...국내·해외 동시 ↑

해외 유입 73.3%, 국내 감염 49.1%

‘켄타우로스’ BA.2.75 변이 3건 검출

코로나19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BA.5 변이의 검출률이 56.3%로 높아졌다.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에서 모두 검출률이 증가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6일 코로나19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을 발표했다.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지난 2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감염과 해외 유입 사례 모두 100%를 차지했다.

변이의 세부 계통을 보면 BA.5 검출률이 7월2주 52.0%에서 7월3주 56.3%로 4.3%포인트 증가했다.

해외 유입 사례에서 BA.5 검출률은 62.9%에서 73.3%로, 국내 감염 사례에서 검출률은 47.2%에서 49.1%로 각각 늘었다.

BA.5는 사실상 우세종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당국은 국내 감염 검출률 50%를 기준으로 우세종 여부를 판단

하고 있다. 이번주 들어 국내 감염에서 검출률이 증가한 건 BA.5가 유일하다. BA.2와 BA.2.3, BA.2.12.1 BA.4 모두 국내 검출률이 감소했다.

검출 건수로 보면 BA.5가 697건, BA.4가 60건, BA.2.12.1이 57건 발견됐다.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BA.2.75는 3건 추가됐다.

누적 검출 건수는 BA.5 1779건, BA.4 209건, BA.2.12.1 566건, BA.2.75 4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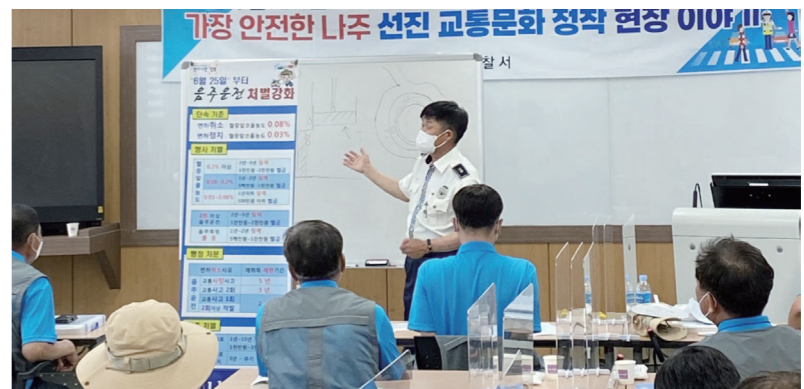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변이 바이러스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표본 의료기관 숫자를 150개로 늘렸

다고 밝혔다. 1차 의료기관은 63개에서 77개로 늘었다. 2·3차 의료기관 73개도 감시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분석대상 검체는 확진자 연령을 고려해 통계적으로 선별한다. 중증환자, 고령층·취약집단 등 고위험군 확진자도 포함하며, 주당 약 1600건 이상의 유전체를 분석하고 있다.

중대본은 현재 매일 약 6400건 이상의 유전체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변이 유래 추이, 신규 변이 출현과 관련한 정보를 방역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

김재환기자



나주경찰, 가장 안전한 나주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실시

나주경찰서(서장 김선우)는 지난 22일 개정 도로교통법 및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 단속 실시 등을 홍보하고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운전자와 함께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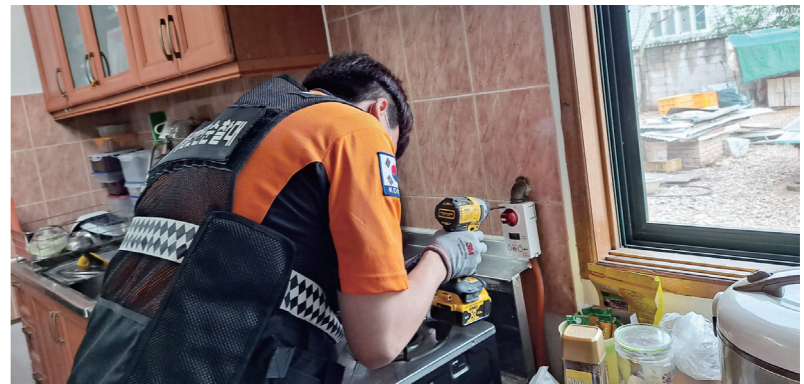
나주=송준표 기자



광양소방, 여름철 수상사고 대비 안전시설물 점검 실시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지난 22일 지역 대표적인 물놀이 유원지인 광양 백운저수지를 방문하여 여름철 행락객의 안전을 위해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나섰다.

광양=기동취재본부



담양소방 119생활안전순찰대,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담양군 복지기동대와 협업을 통해 119생활안전순찰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을 찾아 맞춤형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진도소방, 승강기 감힘 사고 대비 특별교육훈련 실시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 진도119구조대에서 최근 승강기 감힘사고 대비 특별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청렴화분 나눔 캠페인 실시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지사장 김석규)는 지난 22일 오수(완주방향)휴게소에서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 및 공사 청렴의식 홍보를 위한 청렴화분 나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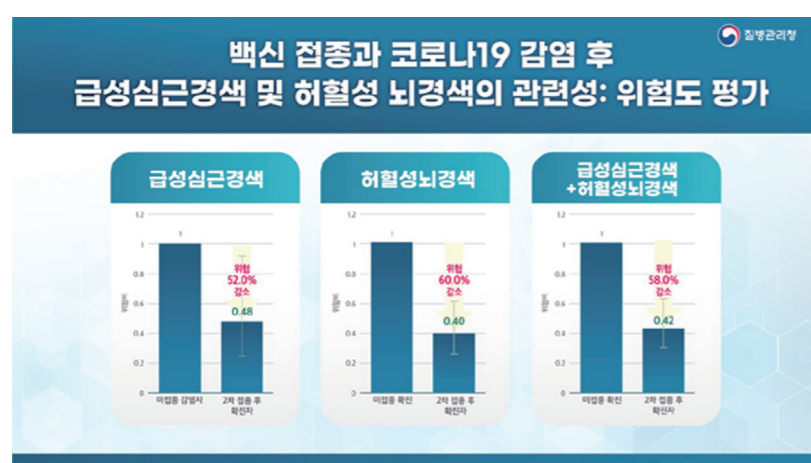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양일간 간부급 직원을 대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을 시행했다.

순천=김승호기자

백신 접종자, 코로나 걸려도 심근경색 위험 52% 감소



백신 접종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뇌경색과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의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는 연구

백신 2차 접종군과 미접종군 비교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후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도에 대한 분석 연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 국내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성인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확진 이후 급성심근경색 또는 허혈성뇌경색 발생률을 분석했다.

그 결과 백신 2차접종군은 미접종군에 비해 코로나 감염 후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52%(95% 신뢰구간: 6%~75%) 낮았고, 허혈성뇌경색 발생 위험은 60%(95% 신뢰구

간: 37%~74%) 낮게 나타났다.

질병청은 “예방접종이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화 예방뿐만 아니라 감염 이후 합병증 발생 위험도 줄인다는 결과를 국가 단위 대규모 데이터로 확인했다”며 “현재 추진 중인 11개의 민관 공동연구 결과도 근거 기반 방역 정책 수립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지난 22일 미국 의학회지(JAMA) 온라인판에도 게재됐다.

정승호기자

침수차를 새차로 둔갑시켜 판매한 ‘벤츠’

벤츠코리아 “고객께 송구...적극 소통해 더 좋은 서비스 제공”

1억중반대 벤츠GLS차량을 구매한 차주가 부식된 내부 부품을 이유로 교환을 요구했지만, 벤츠측이 1500만원의 차주에게 부담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벤츠코리아는 “고객분이 겪은 상황에 사과드리며 소통하겠다”고 해명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 벤츠 온라인 카페에 지난 24일 ‘벤츠에서 썩은 차를 팔았다’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차주 A씨는 “출고된 다음날 스피커 부분이 작동하지 않는 걸 발견하고 딜러에게 알렸더니 서비스센터 예약을 잡아줬다”며 “2주 후 센터에서 트렁크 부분을 분해했더니 이 꼴”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차량 내부에

흰색 가루가 잔뜩 있는 모습이었고, 외장엔프는 녹슬어있다.

A씨는 “센터 직원들도 놀라며 제작 당시 문제로 보이고 콘트롤 박스도 침수된 상태로 오래돼 부식되고 먹통이며 배선도 잠겨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다)”며 “자신들이 봐도 이걸 너무 심각하고 차량 속 어디까지(물이) 침투된지 모르니 교환을 권하더라”고 했다.

그는 “콘트롤 박스 고장이 아니었다면 계속 모르고 탈뻔했고 시간이 지나서 발견했다면 제가 뒤집어 쓸 뻔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벤츠에 교환 요청을 했는데 소문대로 악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벤츠코리아 B이사의 태도를 지적했다.

A씨와 통화한 벤츠코리아 B이사는 취득세 900만원과 감가상각비 600만원을 더한 1500만원을 A씨가 지불해야 교환·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A씨는 “(이사의) 상당히 권위적인 어투와 대응방식에 놀랐고, ‘그 차 팔아서 돈 버는거 없다. 차량감가와 취득세는 구매자가 부담하는게 당연한거다. 1500만원이 그리 큰 돈이 아니지 않냐고 빈정거리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에서 “해당 차량으로 고객님께서 불편 겪으신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며 “차량이 입고된 서비스센터에서는 해당 고객의 차량 스피커 일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당사는



현재 해당 현상이 발생하게 된 정확한 원인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님께서 겪으신 불편을 고려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는 방법 대신 교환 및 환불의 조건을 고객님께 제안 한 바 있다”며 “당사는 해당 차량으로 고객님께서 불편 겪으신 상황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당 고객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슬비기자



이어지는 택시 대기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주택가 노인통장 훔쳐 현금 인출한 20대 구속

새벽시간 주택에 들어가 통장을 훔친 뒤 여수와 순천, 광양 등을 돌며 수천만원을 인출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통장을 훔친 후 여수, 순천, 광양 일대를 돌며 46회에 걸쳐 5900만원을 인출한 A(27)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의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동일 수법, 통장 거래 내역, CCTV 분석 등 추적 수사를 하던 중 대중 숙박 시설에 은신한 A씨를 검거하고 5200만원을 회수했다.

A씨는 고령의 주민이 사는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하고, 통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해 보관한다는 점을 노리고 주로 고령층이 거주하는 주택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여수=기동취재본부